

제10회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10년의 성과와 방향
민간 비영리 연구소의 역할과 방향 모색

제10회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10년의 성과와 방향 민간 비영리 연구소의 역할과 방향 모색

■ 일시 : 2024년 7월 12일(금) 14:00

■ 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1층 대강당

■ 프로그램

사회자 : 박미희 연구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시간	내용
13:30~14:00	참가자 접수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14:10~14:40	기조강연 비영리섹터에서 민간 연구소의 역할과 방향 강연자 :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14:40~14:50	휴식
14:50~15:20	주제발표 나눔지식네트워크 지난 10년의 경험 :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 발표자 : 유재운(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장윤주(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지승(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15:20~15:5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5:50~17:30	네트워크

나눔지식네트워크란?

‘나눔지식네트워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가 나눔지식을 교류하고,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조직한 네트워크입니다.

각 기관의 연구 경험과 지식 교류를 통해 나눔지식의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를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 차

제10회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 기조강연 | 비영리섹터에서 민간 연구소의 역할과 방향 01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주제발표 | 나눔지식네트워크 지난 10년의 경험 :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 15

유재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장윤주(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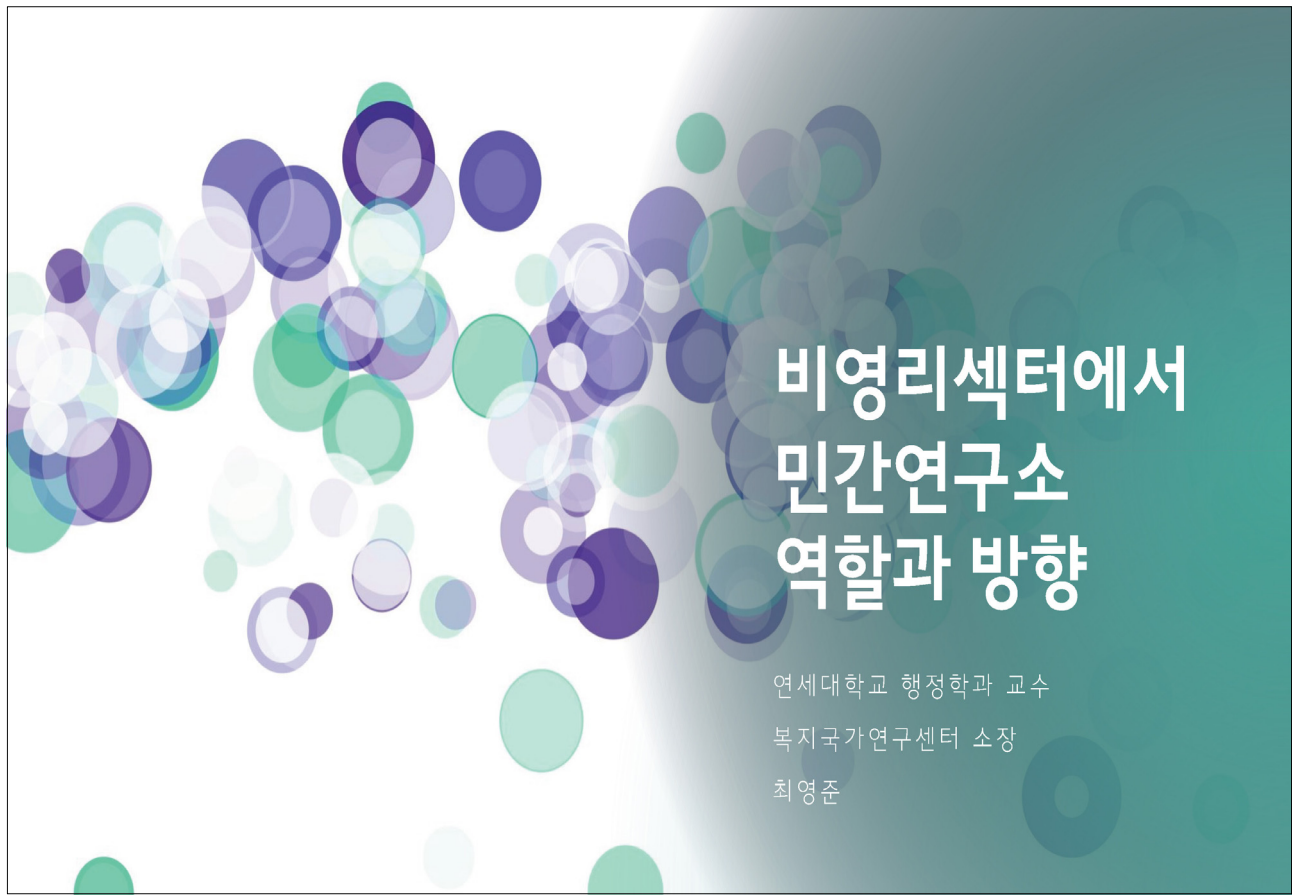
전지승(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제10회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섹터에서 민간 연구소의 역할과 방향

| 기조강연 |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비영리섹터 연구소, 공공?민간?

- 비영리, 당신은 누구인가요? 내가 무엇이 아님을 부정하는 방식의 네이밍
- 누가 비영리를 연구하는가, 혹은 지원하는가?
- 비영리는 사적영역에 속하는가, 공적영역에 속하는가?
- 우리 시대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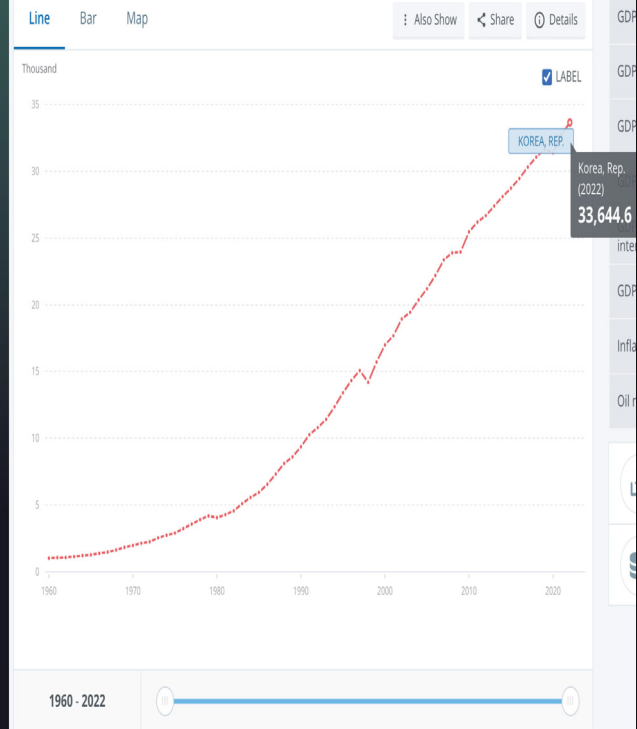
위기는 어디에서?

- **편안**해지고 있지만 **평안**하지는 않은
- **부요**롭지만 **여유**롭지는 않은
- **연결**되어 있지만, **관계**는 희미해져 가는
- **가치**를 착취하여 **가격**을 생산하는...
- **미래**의 열매는 꺼내어 **오늘** 먹는...

GDP per capita (constant 2015 US\$) - Korea, R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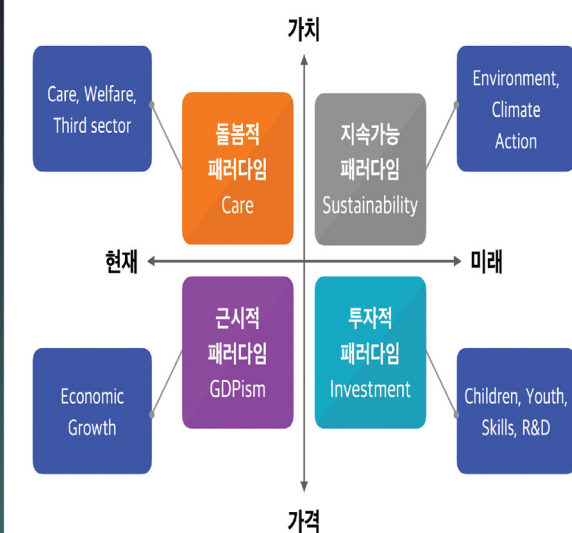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License: CC BY-4.0



무너진 균형과 우리 사회의 균열

가치와 가격에 대한 네 가지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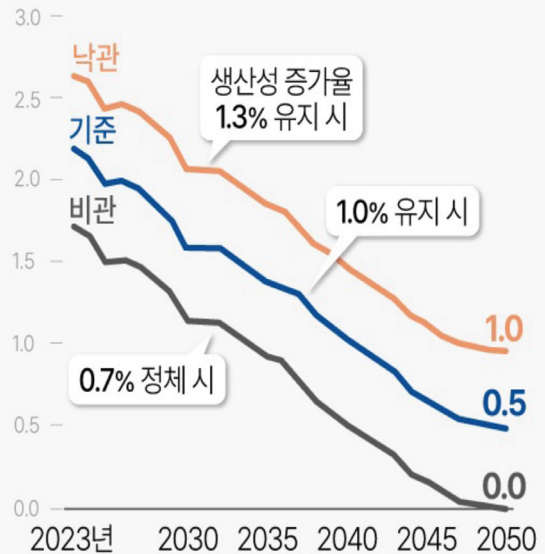
- **가격(경제적 가치)**: 인간의 물질적 욕구충족을 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의 중요성/쓰모
- **가치(사회적 가치)**: 인간관계와 복지에 대한 가치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사회의 유지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
- 균열이 지속되면 침몰로

쌓이는 문제들, 그리고 삼중전환

- 출산율
- 아동/청소년 과도한 사교육
-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
- 성별임금격차
- 과도한 근로시간: 쉬면 괜찮지 않아...
- 건강상태인식
- 노인빈곤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생산성 격차

→ 디지털전환, 기후전환, 그리고 인구전환

KDI한국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20221108

새롭고 나타나는 사회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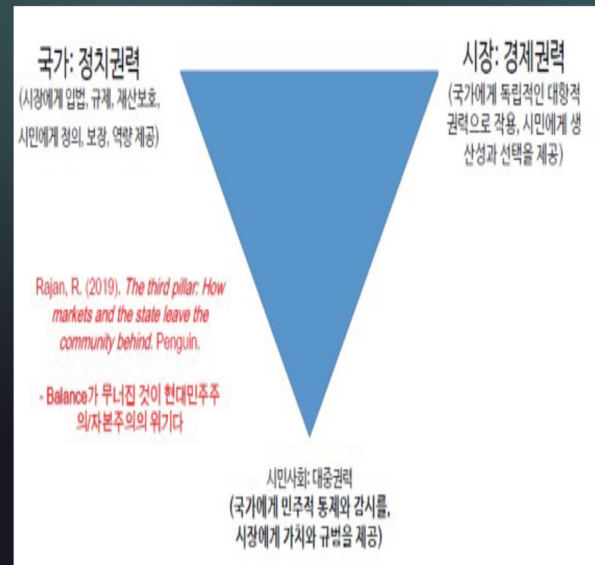
- 전통적 사회적 위험 (+ 산업화) 에서,
- 새로운 사회적 위험 (+ 탈산업화 + 세계화) 으로,
- 이제 코로나 사회적 위험 (+팬데믹 + 디지털화 + 기후변화)?

- Choi, Y. J., Kühner, S., & Shi, S. J. (2022). From "new social risks" to "COVID social risks": the challenges for inclusive society in South Korea, Hong Kong, and Taiwan amid the pandemic. *Policy and Society*, 41(2), 260-274.

-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빈곤(빈곤율, 지니계수..)'과 '실업(고용률, 실업률...)'이 복지의 기준인 국가에 살고 있음
 - 불안정은? 불확실성은? 외로움은? 자유는? 사랑은? 관계는? 효능감은?
 - 더 좋아질까?

국가와 시장의 한계-약한 시민사회

- 국가(최대 가치 창출자, 하지만)에 대한 딜레마
- 큰 정부를 원하지만 관료적 정부는 싫음
- 숙의하고 견고한 정부를 원하지만, 과감하고 민첩한 정부를 원함
- 열린 정부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도 포획되지 않은 정부를 원함
- 시장(최대 가격 창출자)의 한계
- 가격과 가치의 양립에 대한 지속되는 딜레마
- 디지털화가 초래하는 불안정노동과 고립화
- 민주적 결정의 한계



비영리 역사적 맥락

-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뒀안길에서 자란 씨앗
- 1970년대 국제원조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복지/교육/보건 영역 국내 비영리단체들이 성장
- 국가의 관심 밖에서 역설적 자율성을 누리며 성장했지만, 국가 의존성/종속성 그리고 폐쇄성이 있었음
- 서비스제공형 비영리 밖은 민중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다양한 사회운동이 성장함

1939년 양영회(현 양영재단)로 시작된 장학법인의 역사는 일제시대 단 4곳에서 70년대 119개 신규설립, 80년대에 446개 설립으로 급증 (황창순, 2016)

한국에서 활동하는 민간의원단체들은 KAVA라는 이름의 연합회를 구성하여 ... 1952년 7개기관이 모여 발족한 KAVA는 1955년 사무국을 개설하고 ... 1970년에는 76개의 회원단체로 성장하게 되며. 한 때는 제2의 보사부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기구로 활동하고있었다 (이혜경,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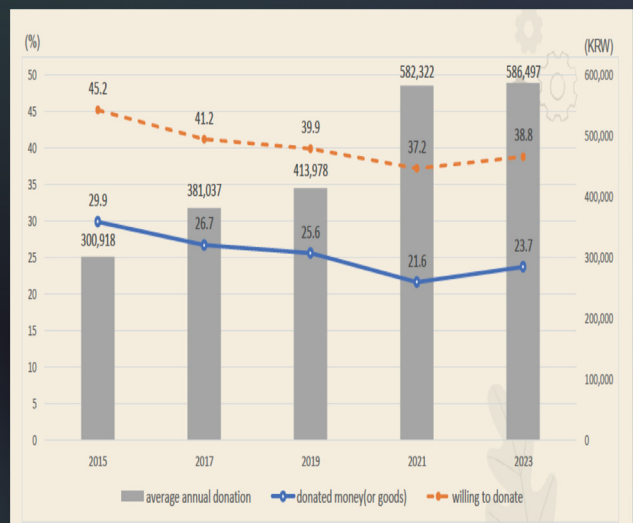
비영리 역사적 맥락

-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공공을 주도하는 비영리
- 자유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의 씨앗이 확산
- 성장+교육의 결과로 두터운 중산층 + 사회운동을 통한 시민사회 조직과 역량이 향상 → 새로운 비영리/시민단체들의 성장으로 이어짐
- 권위주의의 그늘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사회이슈들이 제기됨: 여성, 장애인, 환경 등

“한국의 여론을 주도하는 전문가(교수, 정치인, 관료, 대기업 임원, 언론인, 법조인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이나 세력으로 정치권(27%) 다음으로 시민단체(25%)를 꼽고 있다(시사저널 00/11/09, 제576호). 그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는 단체로는 여당인 민주당(16.2%), 야당인 한나라당(14.9%), 재계(11.1%), 언론(10.2%), 노동계(5.1%), 종교계(4.7%), 관료집단(4.1%), 재계단체인 전경련(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염재호, 2002:114)

비영리 역사적 맥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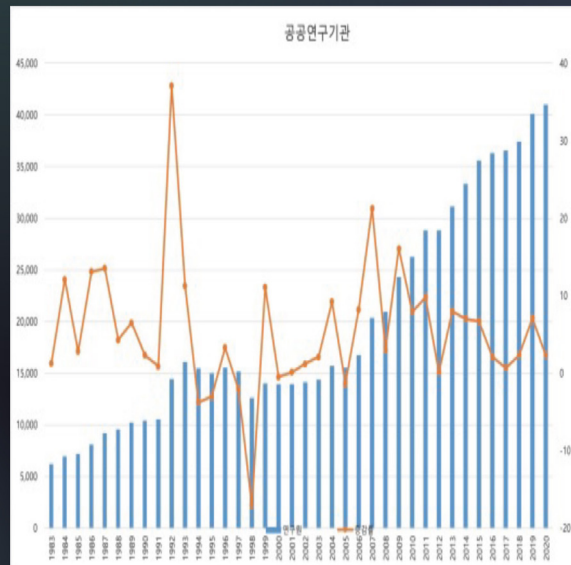
- 2000년대에서 코로나 전까지: 국가의 진격과 수세적 비영리
- 국가가 빠르게 공공의 장을 점유하고 역할을 확대함: Public = Governmental?
- 비영리/시민사회 인력이 빠르게 정치/행정으로 이동
- 비영리의 성공적 경험이 국가의 정책으로: 비영리의 역할 확장? 혹은 또 다시 의존성/종속성 강화?
 - 국가복지의 확장



Yangrae Oh (2024)

비영리 역사적 맥락

- 2000년대에서 코로나 전까지: 국가의 진격과 수세적 비영리
- 제도 정치의 정상화나 개혁적 성격의 정권이 갖는 '의제포섭능력' 나아가 '의제생산능력'에 따라 시민운동이 '개혁의제의 선정'에서조차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홍일표 2004)
- 시민사회에 의해 주도되는 공공영역이 2000년대 관주도로 전환되게 됨.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수 및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22)

비영리의 필요성

- 1) 가치의 옹호자 및 국가와 시장의 견제자로서 역할
- 2) 가치 치료자 및 창출자의 역할
 - 개인과 개인의 관계, 집단과 집단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의 복지가 위협받고, 사회적 신뢰가 위기에 빠진 이때에 가치가 파괴된 것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고, 다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 특히, 국가가 미치지 못하는 다양하고 많은 틈새들을 찾아가서 보듬고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능하다.
- 3) 작은 문제해결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 및 시장의 인재를 키워내는 화수분의 역할
- 4) 국가와 시장이 부딪히는 공간에 연골과 모퉁이돌의 역할로, 때로는 완충의 역할
 - 단순히 비영리조직 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나 소셜벤처, 협동조합과 같은 혼합조직들(hybrid organizations)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5) 비영리영역의 일자리 창출 역량
 - 우리의 경우 현재 2.7% 정도의 고용을 비영리조직이 담당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10%가 넘으며,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약 8% 정도의 고용을 비영리조직이 창출

지식사회, 아이디어, 민간연구소

- 지식의 가치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사회: 지식사회
- 새로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권력? 경제적 부? 사회적 요구? 아이디어!
- 아이디어(Idea)가 지식사회의 핵심적 변화 동력
 - 휴리스틱스로서 아이디어
 - 전략적 도구로서 아이디어
 - 제도적 틀로서 아이디어
-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싱크탱크/민간연구소

- formally autonomous organizations that disseminate, or themselves produce, policy research
- “switchboards” through which epistemic communities are connected
- “universities without students”
- “dealers in second-hand ideas” (?)
- a powerful discursive tool used by organizations to position themselves at the crossroads of academia, politics, media and business
- think tanks are essentially civil society actors (the production of ideas and ideology being chiefly the function of civil society)

- Åberg, P., Einarsson, S., & Reuter, M. (2021). Think tanks: New organizational actors in a changing Swedish civil society.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32, 634-648.

씽크탱크/민간연구소 연구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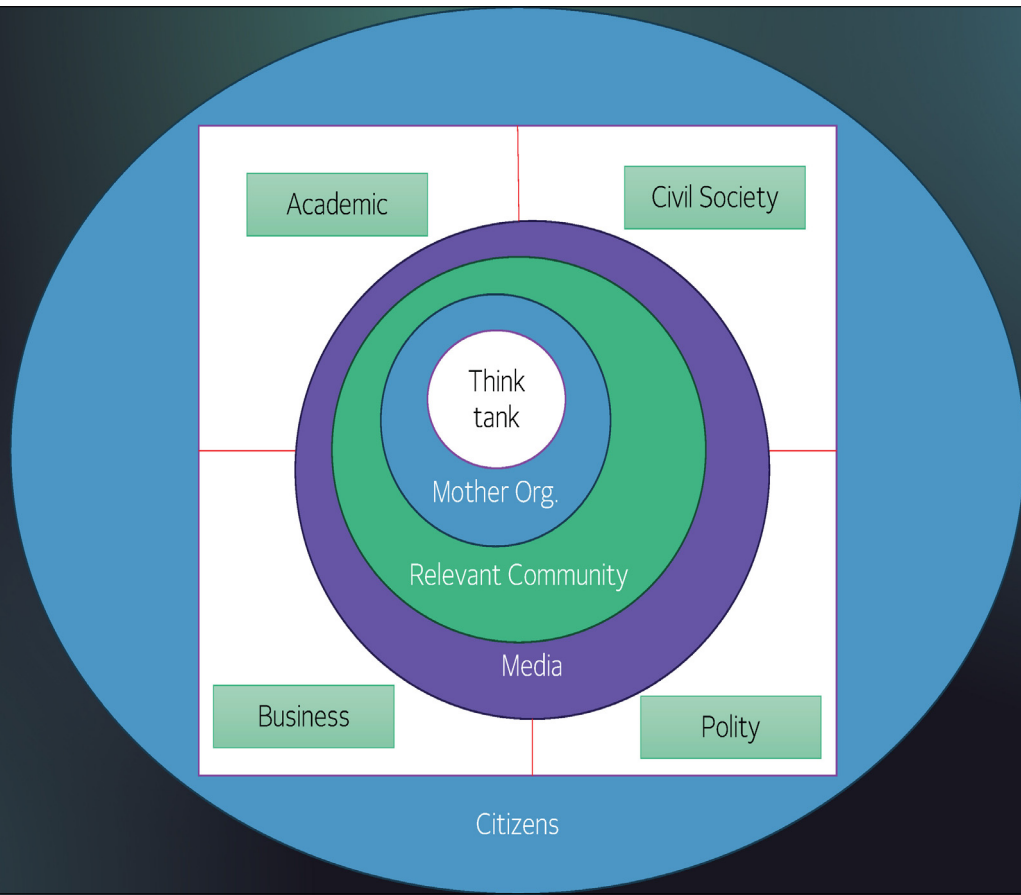
- 조직 내 연구
- 조직의 목표 위한 연구: 정체성 요인, 역량적 요인, 거버넌스 요인, 지속가능성 요인
- 조직 외 연구
- 아이디어(담론부터 제도까지) 생산 및 유포를 통한 더 좋은 사회 만들기/시민사회 만들기
- 국가지원 연구소와 시장지원 연구소의 한계
- 비영리 민간연구소 활성화 필요성 하지만, 한계점

바람직한 조직의 조건

최영준, & 유정민. (2023). 비영리스타트업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연구: 유사 조직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5(3), 255-285.

정체성 요인	미션의 독특성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인지되지 않았던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가?
	사회문제 시급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시급한가?
	해결방법 독창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새로운가?
역량적 요인	리더십	-대표가 조직 및 사업을 이끌고 나아가는 역량은 충분한가?
	문제해결 가능성	-제시된 사업을 통해서 미션이 달성될 수 있는가?
	유연성, 민첩성	-변화하는 환경에 조직이 얼마나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가?
거버넌스 요인	소통, 협업 역량	-사회/시민/기부자들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투명성, 윤리성	-조직을 얼마나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는가?
지속가능성 요인	임팩트의 즉각성	-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임팩트/성과가 즉시적으로 나타나는가?
	성장가능성	-조직 및 사업의 규모가 성장할 것이 기대되는가?
	재정, 수입	-지속가능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민간 연구소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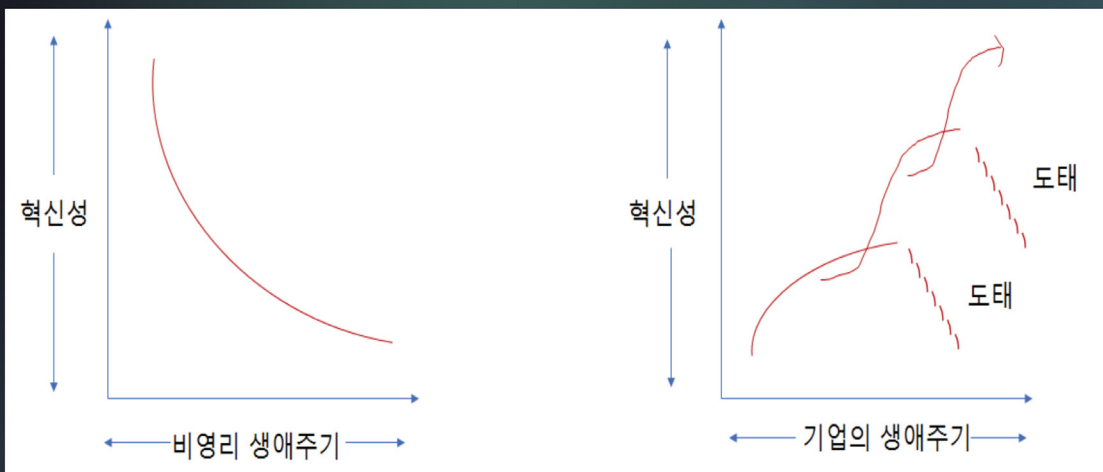
비영리연구소 checklist 만들기

- 연구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 연구소는 비영리섹터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모조직과 관계가 얼마나 유연합니까?
- 당신의 Stakeholder는 누구입니까? 이들과 얼마나 connect되어 있습니까?
- 연구의 Audience가 누구인가? 미디어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직접 보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 연구결과를 얼마나 Impact있나요? 어떻게 Amplify합니까? 미디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 연구소의 Leverage는 무엇입니까?
- Alliance는 누구입니까? 이들과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기업지원 연구소, 민간 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예산 240억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년 예산 160억원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예산 140억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년 예산 100억원
- 삼성경제연구소... ?
- 나눔문화연구소?
- 기부문화연구소?

민간연구소: 혁신과 재정의 제약



이윤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는 영리기업에 비해, 'Cause'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책임이 있는 비영리기관들은 변화가 쉽지 않은 경향
기부자들은 Cause에 직접 기부금을 사용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개발인력투자를 하는 것에 거부감이 강한 경향이 있음

Hull, C. E., & Lio, B. H. (2006). Innovation in non-profit and for-profit organizations: Visionary, strategic, and financial considerations. *Journal of change management*, 6(1), 53-65.

비영리연구소의 High Road와 Low Road

- High Road
 - 모기관 전략 선도
 - 자체 연구생산 능력 극대화 전략 + 스위치보드 역할
 - 시민사회 전체 영향력 강화 + 사회이슈 아젠더 선도
 - 적극적 이해관계자 활용
- Low Road
 - 모기관 아젠더에 충실
 - 급소/틈새를 채우는 전략
 - 연구플랫폼화 + Relevant community을 타겟화하는 전략
 - 소극적 이해관계자 활용



제10회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지난 10년의 경험 :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

| 주제발표 |

유재윤(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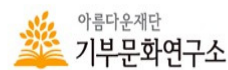
장윤주(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전지승(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제10회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지난 10년의 경험 : 성과와 한계, 발전방향

발표 : 유재윤, 장윤주, 전지승



나눔지식네트워크 10년의 발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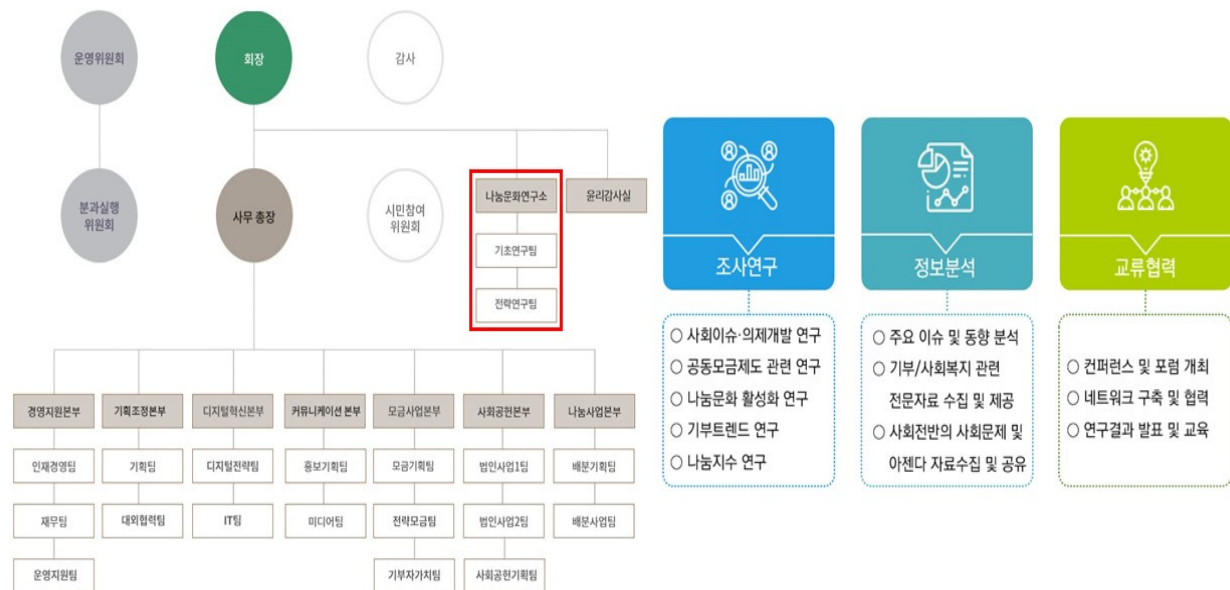
시작 - 목적과 취지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분기별 자체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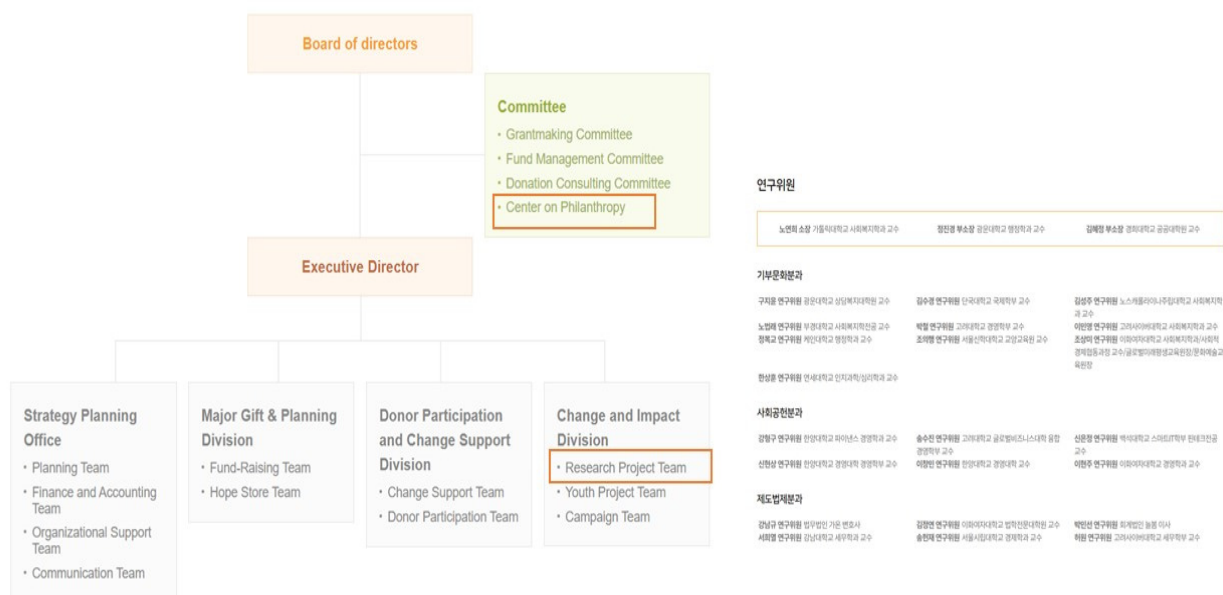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니움문화연구소는 니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정보분석,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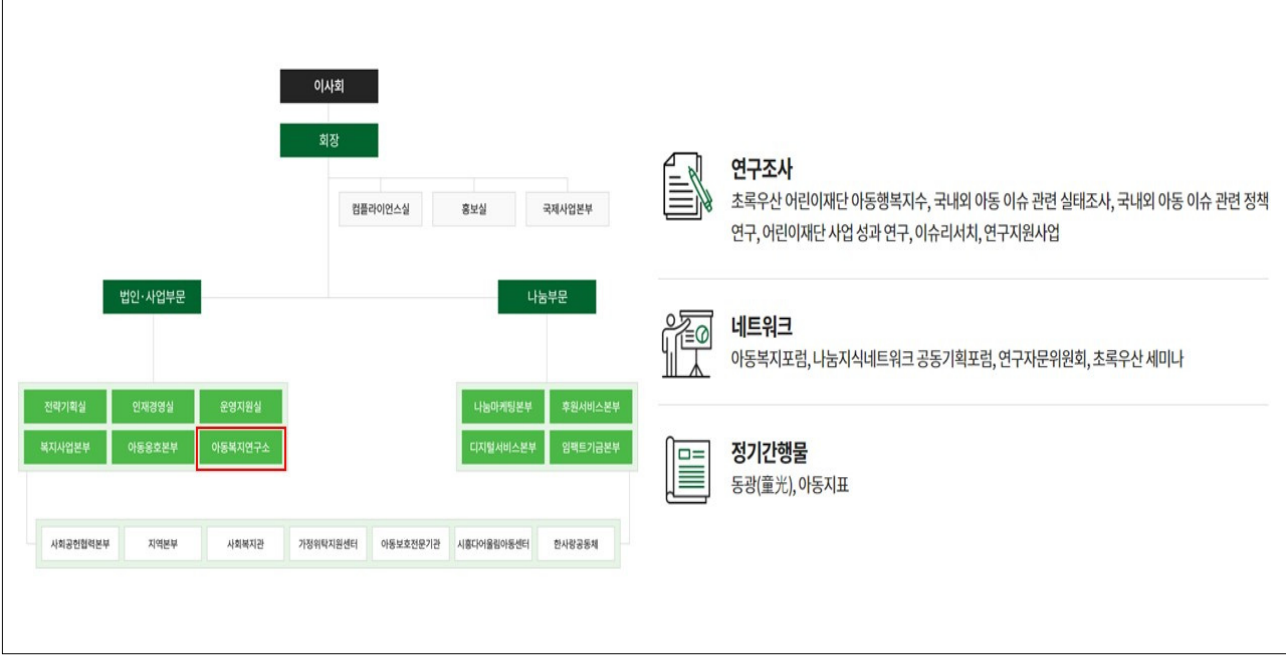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기부문화연구소는 200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기부문화 전문 연구소입니다.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는 2011년 설립된 아동 NGO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연구조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 국내외 아동 이슈 관련 실태조사, 국내외 아동 이슈 관련 정책 연구, 어린이재단 사업 성과 연구, 이슈리서치, 연구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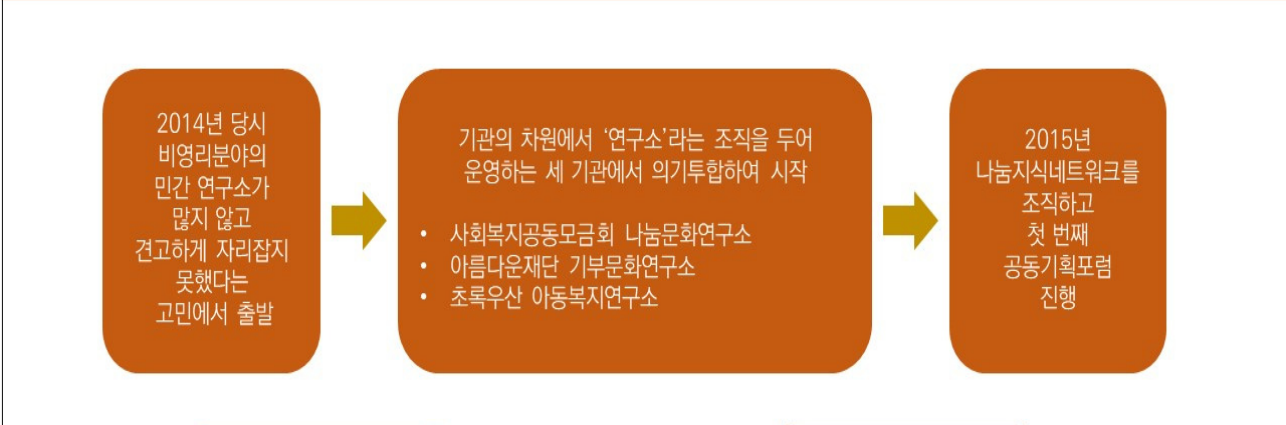


아동복지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연구자문위원회, 초록우산 세미나



 동광(童光), 아동지표

나눔지식네트워크의 시작



서로의 연구 경험과 지식 교류를 통해
나눔지식의 사회적 임팩트를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graph TD; A[주요 활동] --> B[연간 1회의 공동기획포럼]; A --> C[연간 3회의 자체 세미나]; A --> D[그 외의 비정기적 교류활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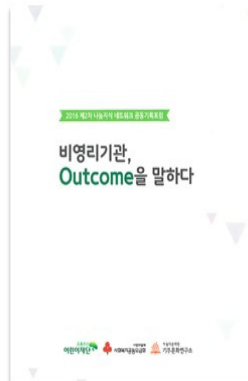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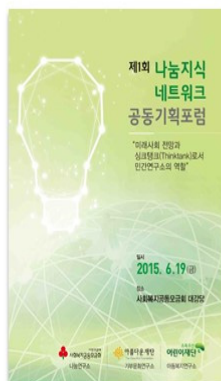
연간 3회의
자체 세미나

그 외의
비정기적
교류활동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연도	행사주제	키워드
2015 (제1회)	주제 : 미래사회 전망과 싱크탱크(thinktank)로서 민간연구소의 역할 1)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2) 민간 지식생산기관으로서 싱크탱크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방향성	싱크탱크, 민간 연구소의 역할
2016 (제2회)	주제 : 비영리기관, Outcome을 말하다 'High Impact'를 향한 비영리 조직의 과제	성과, 임팩트
2017 (제3회)	주제 : 비영리 Index 지표로 읽는 비영리의 현재와 미래 한국 비영리 Index의 의의와 발전방향	지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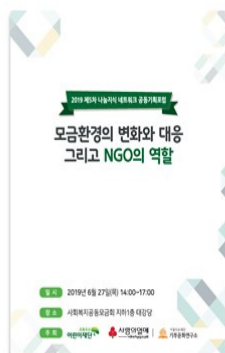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연도	행사주제	키워드
2018 (제4회)	주제 : 비영리기관의 투명성과 신뢰 1) 공익위원회의 정부 규제안의 검토 2)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과 대응	투명성
2019 (제5회)	주제 : 모금환경의 변화와 대응 그리고 NGO의 역할 모금기술의 진화와 혁신, NGO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모금환경, 기술
2020 (제6회)	주제 : '코로나19' 시대의 민간모금과 비영리활동 1) 민간모금기관 코로나19 모금/지원사례 2) 코로나19 모금과 비영리지원 과제	코로나19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연도	행사주제	키워드
2021 (제7회)	주제 :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영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포스트코로나, 위드코로나
2022 (제8회)	주제 : 비영리, 임팩트를 말하다 - 측정의 과정과 현주소 사회적 임팩트 측정의 다양한 방법	임팩트 측정
2023 (제9회)	주제 : 비영리의 씨앗, 자립의 꽃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민간 비영리조직의 역할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자립을 향해	자립준비청년

➔ 드디어 “10회!!!”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세미나

연도	주제
2019	1차 : 2018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및 나눔지수 도출 연구 2차 : 1) 아동권리 인식 및 아동권리 옹호 행동에 관한 연구 2) 국내 학령기 난민아동의 우울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3차 : 1) 조선시대의 나눔 2) Philanthropy 관련 글로벌 행사 및 학술대회 참석 내용 공유
2020	1차 :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연구 2차 : 성과/평가연구를 평가하다 3차 : 새로운 성과측정 접근사례 공유
2021	1차 : 지역별 나눔지수 및 기부유형 연구 2차 : 잠재적 기부자 Landscaping 연구 3차 : 임팩트 파운데이션

세미나

연도	주제
2022	1차 : 2021 사랑의열매 일반국민 욕구조사 주요결과 발표 2차 : 보호대상 아동 주거경험 및 주거실태 연구 3차 : 1) ARNOVA 참석 후기 공유 2) 비영리단체를 위한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만들기 3) 기업기부규모 분석
2023	1차 : 비현금성 자산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2차 : 아동권리기반 사례관리 3차 : 한국 비영리조직의 조직문화 - 현재문화와 선호문화를 중심으로
2024	1차 : 한국의 나눔사 - 해방 이후부터 1960년 이전까지

우리가 다룬 주제들



나눔지식네트워크

우리의 평가



조직 내부에서의 위상과 역할 변화
분기별 세미나와 공동기획포럼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조직 내부에서의 위상과 역할



나눔지식네트워크를 통해 내부 수요의 과제만이 아닌 모금, 기부, 후원자 등의 보다 다양한 연구과제도 수행

→ 특정 과제 중심의 연구소라는 내부 이미지 탈피에 기여

비영리 분야 내 전문가로서 외부에서의 활동이 조직 내부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으나 점점 인정을 받는 측면으로 변화

서로의 연구에 도움 : 비슷한 연구과제를 다루는 경우 타 기관의 경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음

분기별 세미나 평가

매년 3회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



현재의 형태(세 기관만 참여하는 형태)를 유지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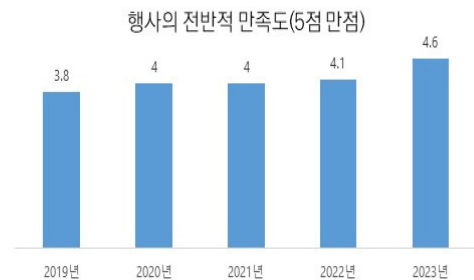
▷ 연구의 수행과 방법론적인 도움을 얻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차원의 세미나로 고도화하는 방안도 고려?

공동기획포럼 평가

매년 1회의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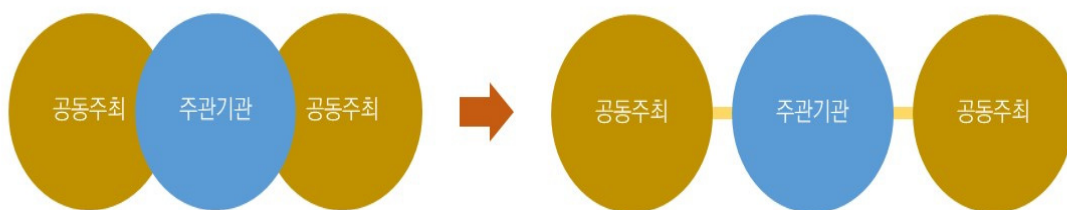


- 당해년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아젠다를 논의하고 설정하기 위한 노력
- 세 기관이 각각 따로 행사할 때보다 주변의 관심도 높고 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음
- 외부에 우리의 연구물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표하는 것에 의의
- 초기에는 외부 교수 및 연구진에 의존하였으나,
 - ▷ 이후 각자의 연구와 기획이 드러나도록 발전
- 전반적 만족도의 상승과 참여자의 긍정적 피드백



공동기획포럼 평가

네트워크 활동의 전반부(2015~2019)와 후반부(2020~2024) 상황 변화



초반의 긴밀한 연결에서 후반부에는 보다 느슨한 연결로

- 초반과는 다르게 행사 진행도 익숙해지고, 각 연구소의 역량이 성장한 결과이기도 함
-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

연구소 생산자료가 내부직원 대상의 공유만이 아닌 외부적으로도 확산하는 기회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 함께였기에 할 수 있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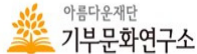
네트워크 활동 외적으로도 도움 : 다양한 사업 측면에서의 노하우 공유

연구 아이디어와 연구방법론, 관련 연구자 풀 공유

타 기관과 논의하기 어려운 것들도 부담없이 서로 문의/자료 공유

연구소 운영 측면에서의 도움 : 사업계획 및 결과 공유 등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 확장



나눔지식네트워크

앞으로의 방향



발전 방향과 과제

앞으로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

발전 방향과 과제

전반적인 평가

- 소통과 정보 교류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있는 네트워크
- 공동연구로서는 미흡한 측면 :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포럼을 한다면 더 의미있을 것
 - 공동연구를 시도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함
-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소로 발전 필요
-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몰입도나 초점에 있어서 각 연구소 간 차이 존재
- 비영리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연구소 & 네트워크로서의 의의
- 네트워크 활동의 확장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존재

앞으로의 운영방식에 대한 고민

기존의 방식 vs. 새로운 색깔 찾기

- 나눔지식네트워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함
-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 네트워크를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형태는?
 - 연구소 기능의 확장
 - 외부 연구소와의 네트워크 확장
- 나눔지식네트워크에서의 공유지점을 매년 찾기보다는 공통주제인 기부/나눔으로 좁혀서 기획
 - 네트워크는 폭 넓게, 학술적으로는 주제를 명확히
- 네트워크의 기능 강화 :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와 의제에 맞춰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 고려
- 분기별 세미나의 확장 : 연구결과의 공유 차원이라면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 고려

감사합니다!

Thank You!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나눔문화연구소는 2005년 '나눔정보연구센터'로 설립된 이래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정보분석,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나눔문화연구소는 나눔문화 기반구축, 기부환경 및 제도분석, 배분사업 성과평가, 지역사회 복지의제 연구 등의 주제로 현재까지 총 230여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나눔문화연구소가 하는 일



조사연구

- 사회이슈·의제개발 연구
- 공동모금제도 관련 연구
- 나눔문화 활성화 연구
- 기부트렌드 연구
- 나눔지수 연구



정보분석

- 주요 이슈 및 동향 분석
- 기부/사회복지 관련
전문자료 수집 및 제공
- 사회전반의 사회문제 및
아젠다 자료수집 및 공유



교류협력

- 컨퍼런스 및 포럼 개최
-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 연구결과 발표 및 교육

나눔문화연구소 주요 연구 및 사업

- 기부 트렌드 연구
- 한국형 나눔지수 연구
- 배분의제 개발 / 평가설계 / 성과평가 연구
- 각종 기부 및 나눔 관련 연구
- 사랑의열매 학술지원사업 / 나눔총서 발간
- 학회 공동주최 / 연구소 기획포럼

나눔문화연구소 블로그 www.nanumresearch.or.kr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기부문화연구소입니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뿌리내리고 효과적인 기부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조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글로벌 연구 파트너로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학습함과 동시에 한국의 현황과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빙코리아

2001년 시작된 기빙코리아는 기부 행동과 인식을 조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부지수입니다. 2015년까지는 개인기부조사와 기업기부조사를, 2016년 개편 이후에는 비영리기관조사와 개인기부조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기빙코리아는 기부참여율, 평균기부금액, 기부처, 기부 방법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기부지수 산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인 사회조사 내에 기부 문항이 추가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의 분석 결과와 원데이터를 공개하고, 발표행사를 개최합니다.



기획연구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비영리기관의 모금능력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기획하여 수행합니다. 고액 및 자산기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부 연구 시리즈”와 법제도 개선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변화를 건언해 왔습니다.

비영리 투명성 강화, 법제도 현실화 및 기술변화에 따른 비영리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

기부문화연구소는 국내외 연구소와 협력하여 국제기부지수, 아시아 공익활동환경지수를 생산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눔박스

기부문화에 관한 도서를 꾸준히 펴내고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비영리 종사자와 기부자에게 기부문화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여 국내 비영리 부문의 역량 강화와 기부문화 발전의 초석으로서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연구소

아동 NPO 최초의 연구소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통해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연구를 통해 사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냅니다.”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는 2011년 설립된 아동 NPO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아동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실시, 아동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선도하는
아동복지포럼 개최 등 아동 옹호활동을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연구, 생성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연차

14년

연구원

5명

연구보고서

159권 (2011-2023)

1 연구조사

선정된 주제로 연구수행
연구보고서 발간

아동행복지수
아동 이슈 관련 실태조사
아동정책 개발연구
이슈리서치

2 정기간행물 발간

특정 목적을 가진 책자
정기적 (매년) 발간

동광(童光)
: 등재후보학술지 준비 중
아동지표

3 대내·외 소통의 장

연구결과 소개
타 기관과 연대활동

아동복지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초록우산 세미나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MEMO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제10회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나눔지식네트워크 10년의 성과와 방향
민간 비영리 연구소의 역할과 방향 모색